

영암왕인문화축제 세계에 알린다... '글로벌 홍보단' 운영



한·중·일·영어권 'W-프렌즈' 50명 선발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개최키로

영암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올해 왕인문화축제를 함께할 '글로벌 왕인홍보단'을 선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전 세계인에게 왕인문화축제를 홍보할 글로벌 왕인홍보단 'W-프렌즈'는 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50명이 최종 선발됐다.

왕인홍보단 'W-프렌즈'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팔로워 수를 기준으로 심사에 한·중·일·영어권 내국인 및 유학생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주광역시, 경기·경상·충청·전라

도 등 전국적으로 선발했다. 글로벌 왕인홍보단은 주어진 미션에 따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 등 영암왕인문화축제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활동 우수자 포상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온라인 서포터즈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비대면 홍보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영암왕인문화축제와 영암을 홍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온라인 왕인문화축제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코로나

극복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암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온택트 시대, 비대면 콘텐츠를 발굴해 참여하는 '왕인'홍보단 'W-프렌즈'와 함께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인의 빛, 미래를 밝히다'란 주제로 열리는 올 영암왕인문화축제 2개 부문 17종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오!', '비대면 장현거리노래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축제홈페이지(www.왕인문화축제.com)와 유튜브 채널(영암왕인TV)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암왕인문화축제 '글로벌 왕인홍보단'. (사진=영암군 제공)

목포시, 다음달 유달산 봄 축제 2년 연속 전면 취소

코로나19 확산 방지...10월14일~17일 항구축제는 정상 개최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유달산 일원에서 개최하는 '목포 유달산 봄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면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축제 개최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2·3차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다.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목포항구축제는 정상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기는 10월 둘째 주로 물때가 조금 기간이라 조수 간만의 차이가 적어 해상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부교 설치도 용이하다. 또 다양한 어선 정박이 가능해 항구 도시 목포의 정취를 배가시킬 수 있다

는 점도 고려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확산 추세이고 정부의 대응방침 및 세부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유달산 봄축제를 전면 취소키로 결정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달산 봄축제가 취소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위안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10월에 개최되는 목포항구축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박정수기자

무안군, 자매도시 성주군과 우수농산물 교류판매

고품질 농산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생산자·소비자 만족



무안군은 지난 9일 비대면 농산물 유통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매도시인 성주군과의 우수농산물 교류판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해 양 기관 직원들로부터 사전 주문받은 물량을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안군은 5Kg 고구마와 아이스 고구마 321박스를

성주로 보내고, 성주군은 2Kg와 5Kg 참외 392박스를 무안군에 보내왔다. 무안군과 성주군은 지난 201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꾸준한 농특산물 교류를 통해 각 군의 대표 농산물을 홍보해 왔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자매도시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결연단체간 비대면 농산물 판매 행사를 확대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제13기 함평군농업대학 비대면 입학식 개최

함평자동차극장 활용

함평군은 지난 5일 입학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함평군 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함평자동차극장 다목적 무대와 주파수를 활용해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학식에는 최고령 입학생 임차량(77세)씨와 최연소 입학생 윤경인(21세)씨가 함께 입학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함평군 농업대학은 한우반, 포도반 등 2개 전문 과정을 개설해 12월까지 최대 20회, 100시간에 걸쳐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각 과정에는 지역특화작목인 한우 사육기술과 현장 컨설팅 중심의 포도 재배기술 등 분야별 전문 농업교육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영농에 적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상의 군수는 "코로나19 시대



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함평자동차극장 특별무대에서 행사가 개최돼 특별함이 더해진 입학식"이라며, "함평군 농업대학이 내실있게 운영돼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기자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번기 상시근무제 실시

봄철 농번기(파종·수확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영광군은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위해 파종시기 3~6월, 수확시기 10~11월, 연중 6개월간 농기계임대사업소 상시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무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북부본소·남부본소) 운영으로 평일근무에 이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는 근무제도이다. 주요 목적으로는 본격적인 영농철

을 맞아 농촌 일손부족과 농기계 이용 불편해소에 있다. 또한 임대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출고시간 09시부터 08시로 1시간 앞당겼으며, 상시근무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에도 근무인력을 배치하여 농업인 영농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상시근무제를 실시한다. 또한 3월은 경칩(驚蟄)과 춘분(春

分)의 절기로 해가 일찍 밝아오는 날이 파스하게 풀린 만큼, 아침을 일찍 서두르는 농업인을 위해 임대농기계 사전출고제로 전일 17시에 임대농기계 출고가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상시근무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농기계로 해소와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